

# 고흥, 전남과 함께 “녹동신항 무역항 지정” 한목소리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녹동신항을 지방관리 연안항에서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변경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고흥군 팔영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김영록 도지사와 고흥군민과의 대화’에서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김희웅 고흥항운노조위원장 등 해상 운송망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고흥해장만칼, 김, 유자, 감귤, 삼다수 등 다수의 품목이 운송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제주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녹동신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녹동신항은 현재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연간 17만 대의 차량과 27만 명의 이용객들이 녹동신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녹동신항을 통해 전국 각지로 운송되는 화물

량은 94만 톤에 달하고 올해는 약 120만 톤의 화물이 운송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동량 수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건의에 대해 “녹동신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고흥군과 협력해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흥군과 교류 협력차 녹동신항을 시찰하는 현장에서 공영민 군수는 “제주와의 물류 협력을 통해 녹동항을 제주로 오가는 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도민과의 대화는 김영록 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고흥군의회 의장, 전남도·고흥군의원, 언론인,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종민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녹동신항을 지방관리 연안항에서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변경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고흥군 팔영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김영록 도지사와 고흥군민과의 대화’에서 녹동신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흥군 제공

보성, 여름철 현장 영농 교육

보성군은 26일부터 ‘2023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영농 교육’을 추진하고 주요 영농 정보를 카드 뉴스 및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영농교육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영농 교육은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보성을 패상리를 시작으로 관내 7개 읍·면 10개 마을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여름철 주요 병충해 방제 및 재배 기술과 여름철 농업인 건강관리 등이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총 10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15개의 카드 뉴스(이미지뉴스)와 6개의 농업기술 동영상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과 SNS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모내기 이후 논 관리 및 병충해 방제, ▲태풍 대비 농업인 실천 사항, ▲고추 바이러스병 진단 및 방제, ▲사과·배나무 약제 살포 요령, ▲화상병과 궤양병 구분 방법 등의 당면 영농 기술 실천 사항을 비롯해 ▲농기계 안전 사용 요령, ▲토마토 병해충 및 생리장해, ▲토지 이용을 높이는 토양조사 등의 시기별 핵심 정보로 이뤄졌다. /장종수 기자

## 진도, 공약사업 추진 사항 보고회 가져 100개 공약사업 중 30건 완료·70건 정상추진

진도군이 최근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공약 사업 추진 사항 보고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희수 진도군수 주재로 공약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문제점 분석,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를 통해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를 핵심 기조로 ▲다함께 잘사는 산업 혁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 혁신 ▲인재를 키우는 교육 혁신 ▲찾아서 머무는 관광 혁신 ▲군민을 섬기는 행정 혁신 등 5대 목표 아래 100개 공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수산물야 예산 30% 편성 ▲전지역 학생 100원 버스 실현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 등 총 30건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완료

후에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아리랑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등 총 70건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공약 이행률이 30%로 나타나 민선 8기 김희수 진도군수 공약사항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행정 절차 이행, 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 정부와 전라남도, 유관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공약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군수는 “공약은 지역 발전을 바라는 군민들과의 약속이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배진 진도군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평 기자

## 해남군,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모집

해남군은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선발된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7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군 실과소와 읍면 등에서 행정사무 및 현장업무에 체험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총 134명이며 취약계층 등의 우선선발 20%, 향우자녀 선발 10%, 일반선발 70%로 선발유

형을 구분해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에 있는 2년제 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신청기간은 7월 3~5일까지이다. 군 실과소(관광지 포함)의 경우 해남군 누리집, 읍면사무소(지역아동센터 포함)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7월 13일 오후 2시 해남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면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참석자에 한해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결과는 7월 14일 군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를 통해 공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https://www.haenam.go.kr) 배너 및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총무과 행정팀(061-530-5236)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윤보현 기자

##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현장체험 진행

장흥군청소년수련관(관장 하주자)은 최근 2023년 현장체험활동 1차 재난&안전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청소년 활동 범위를 넓히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사회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안전 체험활동은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환경과 재난 상황에 대비해 청소년들이 적절한 대처능력과 행동양식을 배울 수 있도록 산악 안전, 호우안전, 지진안전으로 구성됐다.

참가한 총 20명의 학생들은 산악 클라이밍, 외출타기, 흔들다리 건너기, 침수차량 대피, 침수계단 대피, 지진시 건물내 대피하기, SOS신호 보내기, 응급기방 싸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백두연 기자

## 완도군, ‘스마트 관광 지도’ 시스템 구축

완도군은 인터넷·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맞춰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는 인터넷 주소창에 ‘wando.dadoea.kr’를 입력 또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완도군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스마트 관광 안내 지도에는 권역별, 해수욕장, 문화재, 공원, 청산도 슬로길 등 주요 관광지 정보는 물론 내비게이션·길 찾기 기능 등 교통과 맛집, 숙박업소, 행사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지별로 아이콘을 적용해 관광지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했고, 스탬프 투어 등 관

광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음성 안내 기능과 외국어 기능도 추가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스마트 관광 지도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어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시책을 추진해 관광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나영 기자



“무안공항과 연계한 광주 군 공항 이전”발언 무안군민 버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즉각 사과하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무안군 의회·전남도의원(나광국·정길수)